

제주사회복지신문

>2018년 6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28호

6·1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사회복지공약 비교

7면으로 계속

선택 6·13, '복지공약'이 기준 되어야

오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 치러진다. 제주사회복지신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제시한 복지분야 공약을 독자들에게 알려 후보자 선택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기호 1

3대 포용 무상복지 실현

문대림 후보는 7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33.2% 지원, 2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둔 가구에 출산·케어 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비용 무료 지원 등 '3대 포용 무상복지'를 약속했다. 또 공공형 임대주택 지원, 5060세대를 위한 인생이모작재단 설립 등을 내세웠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



기호 2

동서부 치매거점 병원 설립

김방훈 후보는 미래를 위한 사회복지공약으로 제주 동부·서부 치매전문거점병원 설립을 공약했다. 또 아동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로컬푸드점 지원 확대, 지역별 노인 주치의 제도 시범 운영,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확대, 보호자 필요없는 안심병원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



기호 3

공공영구임대주택 3만호 공급

장성철 후보는 핵심 복지정책으로 주거비 안정을 위한 공공영구임대주택 3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과 후 돌봄프로그램 개발회의 설치·운영,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100% 지원, 보육도우미 채용 및 보육교사 1일 1시간 휴식 보장 등을 복지공약으로 약속했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



기호 6

취약계층 주거 환경 안정

고은영 후보는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안정시킨 영구임대주택 공급, 노후화된 도심 주택 리모델링 후 공급 등 주거비 지원을 공약했다. 또 서귀포의료원 소아과·산부인과·정형외과 확충 등 보건 분야 정책과 발달장애인 안심 시범 마을 조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 공약을 제시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



기호 7

안정적 복지체계 구축

원희룡 후보는 '노인장애편복지과' 분리, 어린이 집교사, 간호사, 장애인단체 근무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으로 안정적 복지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또, 무상보육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수급 탈락자 구제,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노인건강지원센터 건립을 공약했다.

6·1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사회복지공약 비교

김광수 후보



김광수 후보는 서귀포지역과 읍면지역 학생 등하교시 통학로의 안전 불안지대를 파악, 사각지대 없는 통학 안전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아이와 학부모, 전담교사가 만족하는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맞춤형 돌봄교실을 재정비하고 학력 인정 대안학교를 마련,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석문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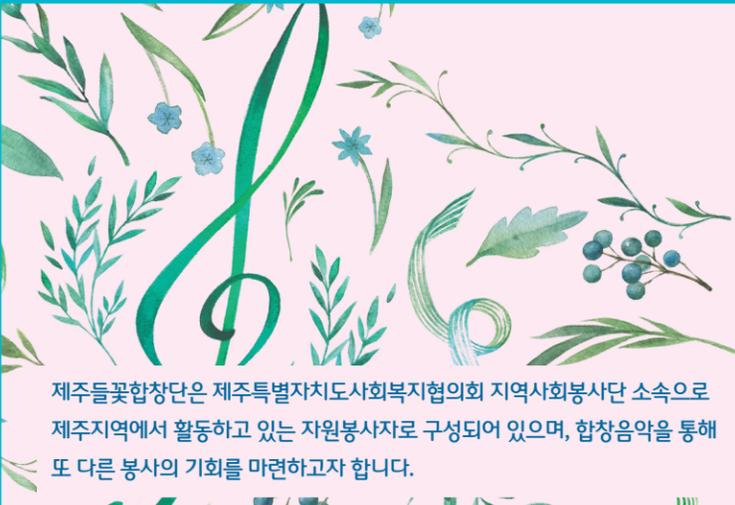


이석문 후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교육격차 해소와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의 사회적 책무 실현 등을 위한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을 약속했다. 또 학교 교실을 미세먼지 안심 공간으로 구축하고 학교 내 생태숲을 조성하는 등 미세먼지 대비·4대 질병 의료비 지원 등 현미경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면소개

- 종합 3면
사랑 넘치는 가족문화 조성한다
- 사회복지소식 4면
자원봉사자·후원자 화합의 장 마련
- 오피니언 6면
시론·칼럼·기고
- 특집 7면
6·1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사회복지공약 비교

제주들꽃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 대상 : 제주도민 남녀 누구나
- 운영 : 매주 1회 합창연습 (화요일 20:00 ~ 22:00 [2시간])
- 연습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2층) 삼다수홀(정풍남 8길 12-1, 화북1동)
- 연습내용 : 음악 기초지식 및 발성교육
- 주요활동 :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공연 봉사활동, 정기연주회 등
- 회비 : 월 30,000원
- 문의 : 제주 들꽃합창단 단장 원석철(010-4691-8031), 총무 이재연(010-2077-0333)

제주들꽃합창단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 소속으로 제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창음악을 통해 또 다른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고령장애인 생애주기별 대책 필요”

도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과 제주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고관용)는 지난달 30일 장애인복지관에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제주지역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해 14.7%를 초과하여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한경·한림 등 농어촌지역은 이미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 노인은 등록장애인의 45.4%를 넘어섰다.

이번 세미나는 인구고령화와 장애인 수명증가로 고령장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고, 장애노인을 위한 서비스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특성’이란 주제로 기초강연이 진행됐으며, 노화장애인 거주시설인 ‘교남시냇가’의 사례발표, 제주지역 고령장애인 현황 및 문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장애와 노화로 이중고를 겪게 되는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여가, 주거 등 맞춤형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장애인 조기노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제주도사회복지협, 교육 프로그램 다양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6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8일에는 ‘법정의무교육 완전정복’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인권교육, 중독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교육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교육비는 10,000원이다.

이어 26~28일에는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복지환경 변화와 사례관리, 간접실천 기술, 사례관리 운영체계 이해, 사례관리의 주요과정 이해 등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졌다.

교육비는 회원 4만원, 비회원 5만원이다.

29일에는 사회복지시설·

단체의 업무추진에 있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구글G스 위트를 활용한 기관의 스마트워크’가 운영된다.

이번 교육은 구글을 활용한 업무전산 구축 방법과 다양한 실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비는 회원은 2만원, 비회원은 3만원이다.

문의는 전화 (702-3784)로 하면 된다.

편의점 ‘수눔음 휴게소’ 오픈



제주수눔음지역자활센터(관장 고은택) 자활근로 사업단으로 운영되는 지역편의점 ‘수눔음휴게소’가 지난 4월 27일 오픈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사진>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제주시 중앙로 165) 내에 위치한 수눔음휴게소는 자활근로 참여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와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운영된다.

수눔음휴게소는 일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생필품은 물론 자활생산물, 지역사회적 경제 제품 등의 홍보와 위탁·판매도 이뤄져 지역 내 자활사업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수눔음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 기업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사장 이경수)은 편의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도 진행했다.

한영조 위원 시인 등단



한영조 제주사회복지신문 편집·자문위원이 종합문예지 한국문인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당선작은 붉은오름과 장군 등 3편이다.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을 통해 “가장 제주적인 자연-오름에서 발효한 한 시인의 시적 정서가 자신만의 메타포로 획득되면서 점차 시세계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 9월부터 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오는 20일 시작된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오는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당신청을 할 수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 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

자 등이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특히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유주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잘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세상에 가장 맛있는 나눔”
5월 기탁 현황

- ▲금강축산유통=축산물160kg ▲유진상사=오뚜기 식품2,341개 ▲(주)쿵스토어 제주이도점=제빵387봉 ▲강순옥님=생활용품5개 ▲금강수산유통=생선 80kg ▲나눔베이커리=제빵394봉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470모 ▲던킨도너츠 제주이도점=도너츠74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8,031개 ▲미인빵=빵132봉 ▲비엔누아즈=제빵337봉 ▲빠라빠빵=빵17봉 ▲신화유통=1,253 ▲상심부식=김치30kg ▲아라파과=떡148개 ▲제주보리촌=보리빵390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주스200개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8년 4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1,010,000	0
난치병환아후원	50,000	0
자원봉사후원	660,000	660,000
복지사업후원	1,010,000	417,690
푸드마켓후원	3,155,000	13,543,92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봉식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편집기자 : 김승지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사랑 넘치는 가족문화 조성한다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문화축제’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홍석운)는 지난달 13일 제주시탑동해변공원에서 가정의 달 및 부부의 날을 맞아 가족 사랑을 실천하고 건전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한 ‘2018 가족문화축제’를 개최했다.<사진>

축제는 길트기 플라멩코 퍼레이드 및 가족 공연단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제4회 2018 가족문화축제 개최식, 사생대회, 공동육아 베희시장, 다양한 체험부스 및 먹거

리 부스와 시상식, 폐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특히 가족사랑 체험존(zone)에서는 여러 형태의 가족치료 체험 및 아빠 육아 참여 다짐 서약 등 다양한 체험 홍보 부스가 운영돼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어 공동육아 베희시장존(zone)에서는 총 16팀의 도내 공동 육아팀이 참여해 베희시장을 운영했으며 운영 후 판매 금액의 10%를 기부

했다.

먹거리부스존(zone)은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모두 가족봉사단 및 플로베,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등이 축제에 참여한 가족에게 무료로 먹거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홍석운 센터장은 “축제에 참여한 모든 가족이 화합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을 만들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제주의 많은 가족들이 가족 문화로 소통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까지 가족문화축제 어린이 사생대회 수상작품을 제주시청 제1청사 별관 로비 문화공간에서 전시했다.

전국장애인사이클대회 성료

제12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장애인사이클대회가 지난 4월 28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사이클연맹(회장 양예홍)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각 시도 장애인사이클 선수 및 임원 35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대회는 제주시 구좌체육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김녕~구좌 해안도로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번 대회 결과 대상에는

강원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최우수상에는 인천장애인사이클연맹, 강원도장애인사이클연맹 두 팀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구리시지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파주시지회, 강원도춘천시장애인부모회 세 팀이 각각 수상했다.

장려상은 서울패션오피스 이클동호회, 파주텐덤사이클이 지도자상은 강원장애인사이클연맹 최정일 지도자에게 돌아갔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제주도 오름은 우리가 책임진다”

JDC이음일자리사업 오름매니저 추가 모집자 본격 활동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후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제주YWCA고령자인재은행이 주관하는 ‘JDC 이음일자리사업’ 오름매니저 추가 모집자들이 지난달 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도내 5개 오름에 배치돼 오름 환경을 지키고 탐방객을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오름매니저들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1차 사업 기간동안 주 12시간, 월 48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오름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추가모집에는 36명 모집에 총 73명이 지원했다.

진바이오 이웃사랑 물품 기부

친환경 기업 진바이오(본부장 김태병)는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를 방문해 100만원 상당 이웃사랑 물품(친환경방향제 180개)을 기부했다.<사진>



김태병 본부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올해부터 매년 가정의 달마다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

을 위한 지속적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부된 물품은 도내 기초푸드뱅크 및 기초푸드마켓 이용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농촌사랑봉사단 봉사활동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 소속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 중인 ‘함덕농협 농촌사랑봉사단’ (단장 조순영)은 지난 16일 함덕리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 어르신 및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밑반찬 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사진>

조순영 단장은 “우리가 정성 들여 준비한 밑반찬을 맛있게 드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생각하면 없던 힘도 생겨난다”며 “앞으로도 단원과 더 열심히



봉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사랑봉사단은 월 1회 도내 사회복지시설 목욕 봉사 및 마을 경로당 청소,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정심 단장 나눔 실천 훈훈



김정심씨(바르게살기운동 아라동위원회 위원장)가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제주광역푸드뱅크를 방문해 100만원 상당 이웃사랑물품(고등어 300마리)을 기부했다.<사진>

김정심씨는 “싱싱하고 맛있는 고등어를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소박한 반찬이지만, 이웃들의 고단한 일상을 든든하게 하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원봉사자·후원자 화합의 장 마련

아라종합사회복지관 한마음체육대회 실시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이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과 복지관 자원봉사자연합회(회장 고춘희)는 지난달 12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실에서 '2018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했

다.<사진> 이번 체육대회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체육대회는 제주대학교댄스팀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기념식 순으로 이어졌다. 조성태 관장은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봉사활동에 땀을 쏟고 소중한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나누는 자원봉사자님들과 소중한 금전을 나누는 후원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며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 노고에 대한 격려가 되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춘희 회장은 "복지관을 위해 수고하시는 자원봉사자님, 후원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인 만큼 마음의 짐을 털어 놓으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치매관련 정보 서비스 확대

도광역치매센터 건강걷기 캠페인 실시

지역주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치매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도광역치매센터(센터장 박준혁)는 지난달 19일 제주시종합운동장 시계탑 앞에서 '제14회 치매예방 건강걷기 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 이날 캠페인은 도광역치매센터 직원과 도민 등 35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캠페인은 치매예방체조, 센터장 인사말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올레길 걷기, '할 수 있어요' '치매정보 혼디모아' '치매예방 주간학습지 뇌똑똑' 등 리플릿 배부, 치매상담콜센터, 치매파트너, 실종예방사업 홍보물품 배부, 폐회식 등으로 진행됐다.



사랑사진 공모전 대상에 김동환씨 선정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직무대행 양창근)는 지난달 12일 센터 4층 교육실에서 '제12회 사랑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공모전에서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동환씨가 '할아버지 품이

제일 따뜻해요'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차지했다. 금상에는 고창남씨의 '너희들을 보면 내가 힘이 나'가, 은상에는 현혜경씨의 '캐리어인줄~', 김아라씨의 '하늘을 날다!', 동상에 허순임씨의 '어떤사이? 우리사이?'

....모자', 제주시희망원의 '너영나영 행복한 웃음', 고하은씨의 '할아버지표 물사워 놀이가 뒤를 이었다. 수상작품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수상작품들 까지도 감상할 수 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대상=김동환 ▲금상=고창남 ▲은상(2명)=현혜경, 김아라 ▲동상(3명)=허순임, 제주시희망원, 고하은 ▲입선(10명)=고승리, 김세복, 김수연, 허진우, 이윤승, 원선혜, 엄선호, 문은주, 권혁민, 김원희, 김영환

청소년 사회적 안전망 구축 협력

사회복지법인 성안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버프' (소장 김은영)는 지난달 9일 제주함덕고등학교, 제주중앙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교폭력 및 가출예방과 청소년 보호 및 안전망 구축 협조,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협조

등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버프'는 다른 유관기관들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원활한 운영과 증진을 위해 함께 교류·지원하며 지역사회 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9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에 강석봉씨 취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4월 27일 복지관 다목적실에서 제9대 강석봉 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취임식에는 NH농

협은행 제주본부(본부장 고석만), (주)드래별(대표이사 고희승), (주)제주환경산업(대표이사 김대성), 뉴스상패 (대표 박명찬), 강병수씨가 발전기금

으로 각 100만원씩 쾌척했다. 강 관장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이면서 서로 통합 할 수 있는 복지관, 공익성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이 강화된 복지관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며 "장애인 및 가족, 봉사자, 후원자 등 13200명이 함께 꿈을 키워가는 명실상부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뇌병변장애 전문성강화 강좌 운영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부속 제주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 3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에 대한 전문성강화 교육사업을 진행했다. 교육은 뇌병변 장애의 이해, 인권, 생애주기에 따른 접근법,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자립과 직업, 정책제안 등으로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15일에는 수

료식과 함께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한 11명의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이어 29일에는 '장애인의 개별서비스 지원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좌가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참가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없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고, 장애인 정책이나 권리 등에 대해 더 알 수 있던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접수 안내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도내 사회복지소식 보도자료를 매달 22일까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 - 보도자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소/식/마/당

(무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달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제주시 애항운동장에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홍보부스에는 노인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코너, 홍보물 배포를 통해 노인학대 유형 및 24시간 노인학대상담전화 안내와 함께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노인학대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했다.

화재발생 장애인 가족 위로



사회복지법인 춘강(이사장 이동한)은 최근 서귀포시 정방동 지역 화재 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나눔의 손길을 전달했다.

이날 임직원들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장애인 가정을 돕기 위해 위로금을 전달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불 등 침구류와 가전제품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아동 안전 환경체계 조성



제주도남초등학교(교장 조성신)는 9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문교정)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업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도남초 재학생들과 함께 통학로 보행 안전환경 구축을 비롯한 지속 가능한 아동 안전 환경체계를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맛있는 제주만들기 선정



제주시니어클럽(관장 김순희) '시니어손맛 아리랑'은 지난달 8일 호텔신라(대표 이부진)와 JIBS가 함께하는 '맛있는 제주만들기' 20호점에 선정돼 새롭게 문을 열었다.

시니어손맛 아리랑은 신라호텔의 전문적인 코칭을 통해 새로운 메뉴 개발과 어르신이 편리한 주방환경으로 개선했다. 또 음식 메뉴는 할망순두부, 가시어멍 김밥, 어멍 김밥이다.

만덕 마을 만들기 진행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과 건입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미숙), 건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한재일)는 4월 17일부터 건입동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만덕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8일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앞에서 감사를 전하는 인사캠페인과 협의체 의원들과 지역 어르신들의 1대1 매칭 ' 짹짹' 만들기를 실시했다.

노인 정서안정·자아 존중 회복 협력



탐라노인복지센터(센터장 김정옥)는 이호지역아동센터(센터장 진근희)와 지난달 1일 세대통합 특화프로그램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1·3세대의 만남으로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감정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청소년들에게는 노인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노인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자아 존중감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교육



제주애덕의 집은 지난 4월 23일 전 직원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사용법 및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론교육과 함께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은 "심정지 후 골든타임은 4분이다. 1분 1초가 아까운 만큼 교육마다 실제상황처럼 몰입하고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서함양 프로그램 개최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호철)는 지난 4월 27일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참여자 정서함양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너븐송이 4·3 기념관과 4·3길, 덕천 북오름 등반, 돌레길 걷기 등의 활동을 통해 다른 사업단과의 교류와 제주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가슴으로 기억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합동공연 업무협약 체결



제주시희망원(원장 김숙희)과 아리쓰리소리왓(회장 김동철)은 지난 4월 13일 문화소외지역 공연활동 및 문화활동 발전을 위한 합동공연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올해 계획된 '희망을 전하다' 5회 공연을 함께 진행키로했다. 첫 번째 공연은 오는 6일 제광원에서 시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난타, 민요, 중창, 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직원 소통 힐링 시간 마련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 4월18일~19일 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직원들의 소통과 힐링을 위한 '한 마음, 한 뜻 직원들의 하나 되는 마음의 시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시리 유채꽃밭, 아부오름, 선홍동백동산 등 제주도내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직원 간의 유대감 강화 및 화합을 도모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창립 10주년 기념식



(재)김녕행복한지역아동센터(센터장김형자)는 지난 3월 24일 센터에서 지역내 기관장과 아동, 학부모, 후원자 등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아동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녕농협, 김건회 등 11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아이들이 100원이상 기부대이를 통해 모은 성금 235,250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탁했다.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협약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위원장 김진우)는 지난 3월 13일 효사랑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안전한 제주 만들기 위한 제주시 지역내 13개 노인요양시설과 인권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시설에서의 일상적, 예방적, 자발적인 노인권 보호 활동 강화를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한 제주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갈 계획이다.

시론

쓰레기 항아리

쓰레기 항아리를 볼 때마다 저게 제자리에 놓인 건가고 생각한다.

작아도 명색 항아리다. 반들거리는 오지그릇인 걸 보면 오랜 시간 고열을 견뎌낸 녀석임에 틀림없다. 당당히 불의 심판을 받아 태어났다. 준수하진 않아도 매끈한 녀석인데 팔자 사나워 쓰레기통으로 나왔었다.

쓰레기 버리는 시민의식 문제

조천 만세동산을 몇 바퀴 돌아 벤치에 앉으며 멍해지고 말았다. 눈앞에 콩초가 흩어져 있지 않은가.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 픽 하고 내던진 게 틀림없다. 항아리가 벤치를 끼고 있지 않은가. 손 까딱하면 될 걸 바닥에 버렸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더욱이 선열을 추모하는 공원 아닌가. 눈으로 봤더라면 한마디 했을 것이다. 기가 막혔다. 쓰레기 버리라고 얹혀 놓은 항아리가 무색하다.

곳에 따라선 쓰레기통으로 큼직한 시멘트구조물을 놓기도 하나 용량이 문제 되지 않는다. 버릴 곳에 버리는 시민의식이 문

제다.

달리는 앞 차에서 운전자가 콩초를 던지는 경우가 있다. 바람이라도 불면 불씨가 날릴 판이다. 심지어 안에 있는 재떨이를 밖으로 쏟아 내는 몰염치한 사람도 있다. 이쯤 되고 보면 분통이 터진다. 차를 세워 놓고 말로라도 한 방 먹여 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사람들이 왜 이럴까.

수년 전, 일본 후쿠오카 벳부 온천을 갔다가 그곳 주민들의 질서의식에 놀랐다. 길거리며 호텔 어느 구석디도 콩초며 휴지 하나가 눈에 띄지 않았다. 길가에 주차한 차도 전무했다. 개화가 한 발 빨랐고 경제대국이라 우리 옛 문화를 전수 받아 성장한 나라가 일본이다. 그러면 얘기가 이상해진다.

길거리 청소부가 쓰레기를 줍는다. 간간이 자연이 돕는다. 휴지며 콩초가 시간이 지나면 깨끗이 사라지니 희한하다. 비가 걸레질 해 주고, 바람이 비질을 해 준다. 비 그치고 바람 자고 나면 길거리가 씻은 듯이 청결해 있지 않은가.

한번은 공원 직원이 비닐봉지

에다 집게로 콩초를 주워 담고 있었다. 외국인이라도 본다면 낮 뜨거운 일이다. 도덕 지키는 일을 복이라 해서 유후덕(攸好德)을 오복의 하나라 치는 나라인데...

아이들 모습 속 희망 찾아

자괴감을 곱씹으며 걸어오다 건널목에서 하얗길 아이와 만나 흠뻑 했다. "안녕하세요." 낮은 아이가 고개 숙여 인사를 한다. 얼떨결에 "그래, 참 착하구나!" 집으로 오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서 희망을 봤지 않나.

이렇게 자라 주면, 후일 담배 피우는 손이 쓰레기 항아리를 외면하는 일은 없으려니.



김길용 편집위원·칼럼니스트

기고

가정폭력이 없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강경표

일도2동주민센터 주무관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그 어느때 보다 더 생각할 수 있어 가정의 달이라 일컫는다. 행복한 가정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가족 간의 대화, 끊이지 않는 웃음, 감사와 애정의 표현, 상호 다른 점의 존중, 봉사나 나눔의 실천,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 것 등이다. 이렇듯 가정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이 크나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가정 내에서 폭

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숨을 거두는 사건도 있었으며 부모의 방임과 아동학대로 물골이 앙상한 어린이가 몰래 집 담을 넘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에게 반복적·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는 사회적인 용인·체면·자녀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기력하게 당하며 참고 사는 등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처음 폭력이나 학대 등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사법당국에 신고하거나 이웃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폭력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습관성 폭력

으로 굳어질 수 있어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들은 성장기에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많고 성장기 시절에 부모에게 맞은 경험이 있거나 부모들의 폭력을 행사한 것을 자주 목격한 사람이 성인이 되었을 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사회적인 변화에 갈등은 언제나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 해소를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5월은 연휴가 길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각종 나들이, 여행 등 야외활동을 많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주변에 홀몸어르신,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소외된 이웃들을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칼럼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지역주민이다

6·13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예전 같으면 우리사회는 온통 선거 정국으로 뜨거웠을 것이다. 그러나 회담 취소라는 냉탕에 이어 곧바로 회담 취소가 아니라는 온탕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같은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 등 굵직굵직한 이슈에 지방선거가 묻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중앙에서는 '정상회담 블랙홀' 앞에 "지방이 없는 지방선거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터다. 물론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느냐 하는 워낙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될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는 촛불 정국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이다. 선거 결과는 우리들의 삶과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가 정상회담과 같은 굵직한 이슈나 중앙정치의 분위기에만 쏠려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다.

촛불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

조심스러운 분석이지만 제주지역은 이와는 다른 양상이다. 도지사 선거 분위기가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다. 다만, 교육감선거와 도의회 의원선거는 너무 조용하다. 지방선거가 실종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 지방선거 전반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우려스러운 바 역시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서로 헐뜯기 비방이 예사롭지 않다. 제주 4·3 70주년을 맞은 평화의 섬이 네거티브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기억하기조차 싫지만 과거 제주판 3김에 의한 선거 논공행상이 어땠는가. 지역사회를 마구 갈라놓고 찢겨놓았다. 다시는 이러한 구태를 반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국적으로는 이번 6·13 지방선거가 정상회담 블랙홀에 빠져 이슈도 없고, 정책도 없고, 인물도 보이지 않는다는 3無 선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양상이 '깜깜이 선거'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정책 담론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유권자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성숙한 주권의식이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지역사회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을 갖는 후보들이 누구인지를 꼼꼼히 검증해 볼 일이다. 중요한 사실은 지방선거의 주인공은 후보자들이 아니라 유권자인 지역주민이라는 점이다.



김범훈 (사)Geo-Jeju연구소 대표

6·1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사회복지공약 비교

☞ 1면에서 계속

6·13

선택의 기준을
'복지공약'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 6월8일(금)~9일(토), 선거일 투표: 6월13일(수)

<p>기호 1</p> <p>문대림 후보</p> <p>더불어민주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복지국 개방형 전환 및 조직 확대 : 보건복지국장 개방형 모집, 조직 진단을 통해 노인장애인과 분리 등 조직 개편 검토 2. 다문화가족종합복지관 설치 및 종합 지원 방안 마련 : 다문화 가정 DB 구축, 다문화 아동·청소년 교육·상담 지원, 외국인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3. 더불어 아껴주는 반려동물 복지체계 확충 : 반려동물 보호소 시내권 설치를 통한 제주동물보호센터 역할 분담, 중성화 수술비 지원 4. 제주도민 이동권·물류비 지원프로젝트 시행 : 제주도민 항공료·배삯 반값 지원, 택배비·물류비 반값 지원 5. 독감 무료 예방접종 중·고생 및 임신부까지 확대 : 2019년부터 임신부 및 중학생 대상 확대 시행, 2020년부터 고등학생 대상 확대 시행
<p>기호 2</p> <p>김방훈 후보</p> <p>자유한국당 Liberty Korea Party</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집 간식비 1인당 1,000원으로 증액 : 어린이집 간식비 1인당 현행 500원에서 1000원으로 현실화 2. 교육정책 실현 :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 저소득층 자녀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기회 확대 등 3. 제주형 기초연금제도 마련, 기초연금 현실화 : 개별공시지가 폭등으로 기초연금 심사에서 대거 탈락한 어르신들을 위해 현실에 맞게 개선 4. 제주해녀, 현업 수당 대신 특별연금 지급 : 고령 해녀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은퇴수당 같은 연금 지급 5. 인구 절벽 대안, 전국 최초 태아 교육비 지급 : 임신기간이 10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지급해 태아의 정서교육, 교통비 등으로 활용 가능
<p>기호 3</p> <p>장성철 후보</p> <p>바른미래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영구임대주택 3만호 공급 : 취약계층과 소득 중상위 계층을 위한 월 임대료 10만원대 공공영구임대주택 공급 2. 자영업자 전기료 20% 할인 지원 : 2022년까지 3개년 한시 시책으로 사드보복으로 인한 매출 감소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 3. 방과 후 돌봄프로그램 개발회의 설치·운영 :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체사업 모니터링 후 중복사업들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4.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100% 지원 : 어린이집 유형별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실질적인 무상보육시대 마련 5. 보육도우미 채용, 보육교사 1일 1시간 휴식 보장 : 중·장년들이 보육도우미로 일할 수 있도록 보육도우미 양성과정 개설, 채용 지원
<p>기호 6</p> <p>고은영 후보</p> <p>녹색당 대안과 실천의 정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니버설 디자인 전면확대 : 관공서 중심 3km 단계별 적용, 관광지 실태조사 후 의무 적용 실시 2. 발달장애인 안심 시범 마을 조성 : 시범마을 예산 및 인력 지원, 임기내 제주 전체를 시범 지역으로 조성, 국가 지원체계 마련 3. 청소년 정책 : 청소년 야간 통학로 안전 보장, 제주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정책 마련 4. 아동인권교육 제도화 : 유치원, 어린이집 인권기반 보육환경 조성,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보장, 아동인권교육 제도화 5. 마을 주치의 제도 시행 : 가족의 1차 진료 담당하는 주치의를 지정, 전화 등의 다양한 상담채널이 가능토록 운영, 맞춤형 진료체계 구축
<p>기호 7</p> <p>원희룡 후보</p> <p>무소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무상보육 사각지대 해소 2. 특수보육프로그램 지원 및 공동육아 확대 : 특수보육프로그램 지원확대, 제주형 공동돌봄 수놓음육아나눔터·모다들영돌봄 확산 3. 공공보건의로 강화 : 도내 응급의료 체계 확충 및 서귀포의료원의 역할 및 의료 역량 강화 4.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 지원 및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어르신 구제, 어르신 일자리 창출 확대 5. 장애인 소득증진, 삶의 질 확보 등을 위한 시책 추진 : 이동권 확보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지원 강화, 여성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6·1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사회복지공약 비교

<p>김광수 후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력 비인정 교육시설 학력인정 기관으로 추진 : 서귀포오석학교, 제주등하학교 등 평생교육 시설들도 학력인정 기관 전환 2. 교육 전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 교육청의 비정규직을 시작으로 학교 현장의 배움터 지킴이까지 비정규직 제로화 3. 특수 교육 대입/직업 학교 바우처 제도 신설 : 특수학교 대학진학 전문창구 신설, 부모 도움없이 통학이 가능한 교통 분야 지원
<p>이석문 후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복지특별도 완성 : 도청·도의회와 협력으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도입, 교복비,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비 지원 2. 교권 보호 강화 : 교권 보호센터 설치, 교원치유센터 기능 강화로 몸과 마음 건강 치유, 건강하게 교사의 소명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실현 3. 온 종일 돌봄 체제 구축 : 학교 돌봄체제 및 지역사회 돌봄체제 협력 운영, 학교 돌봄체제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시설탐방

(97)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사랑·정성 가득한 편안한 보금자리



▲ 도립요양원은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낙상사고·욕창 제로화 실시로 보호자 신뢰 높아

“입소 어르신들에게는 안전을, 가족들에게는 안심을 선사하는 최고의 노인요양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원장 신동운)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0년 문을 열었다.

도립요양원은 현재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부양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입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실제 도립요양원은 지난해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낙상사고·욕창 제로화’를 실시해 보호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도립요양원은 낙상 등에 따른 고관절 사고를 근절하고 보다 더 가

까이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시설 내부를 순회하는 ‘라운딩’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또 모든 입소 어르신들에게 욕창 방지 에어매트를 지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단 한 건의 욕창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성과를 거뒀다.

김치민 사무국장은 “어르신들의 안전과 더불어 보호자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상·하반기마다 보호자 회의를 열어 보호자들로부터 바라는 점과 느끼는 점을 수합해 요양원 운영에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들은 휴대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입소 어르신의 상태를 보호자와 공유하

면서 시설에 대한 신뢰를 더욱 탄탄히 쌓아가고 있다.

도립요양원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입소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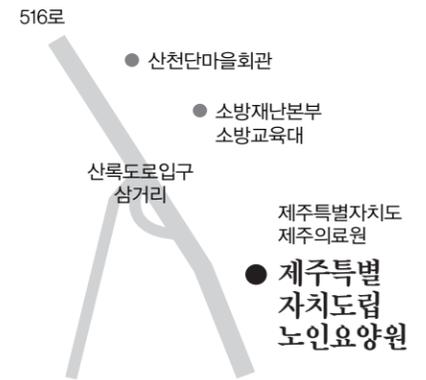
외부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제주시민속 오일시장 나들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안도로, 마방목지, 별빛누리공원 등 입소 어르신들이 가고 싶어 하는 명소를 중심으로 견학도 진행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오일시장에 가면 의류나 간식 등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다”며 “소수이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외부 프로그램 진행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립’의 강점을 활용해 제주를 대표하는 노인요양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도립요양원은 ‘치매노인’ 보호를 위해 몸집을 키울 준비를 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승지 기자>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53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B씨의 사례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B씨(남, 60대)은 중증 장애를 가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근로능력이 없어 다른 수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로 생활하고 있다. 최근 상해 혐의로 약식명령(벌금 7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차피 벌금이 선고되어도 납부할 방법이 없었고 재판을 받으려 법원까지 이동

하는 것 자체로 큰 어려움이 있어 자포자기의 마음만 들던 상황이었다.

B씨는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하여 하소연을 하며 도움을 청하였고 담당 사회복지사는 법률 문제로 판단하여 법률홍닥터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 실수와 오해에서 발생한 몸싸움

B씨는 상담을 위해 변호사를 만나자마자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설명하며 감정이 앞서 욕설을 쓰고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나라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배정된 국선 변호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쌓인 불만이 섞여 있었는데 B씨가 왜 화가 난 것인지

는 한참이 지나서야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다.

B씨가 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대중교통 버스의 운전 기사를 지팡이로 폭행한 점에서 비롯되었다. 귀가를 위해 시내 버스를 탔는데 노선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고 본인이 생각하는 길이 아닌 다른 노선으로 움직이는 차량 안에서 자신을 내려달라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버스 기사와 시비가 붙게 된 것이었다. B씨는 본인이 버스를 잘못 탄 점을 모른 상태에서 기사와 말싸움을 하였는데 그 기사가 자신의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몸싸움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B씨는 중증 장애인이고 지팡이로 기사를 폭행하

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히려 지팡이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서 있기조차 어려운 몸 상태였다.

기사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지 선뜻 합의를 해 주었고 본인은 이제 사건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선변호사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서 답답하고 화가 났다는 것이다.

◆ 통진정성이 관대한 판결로

B씨는 재판을 포기할 필요도,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오히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잘 이야기 하면 받지 않아도 되는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었다. 본인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조리있게 이야기 하는 기술이 부족할 뿐이지 B씨의 사연은 그 자체로 안타까운 구석이 많았다.

결국 B씨의 사정과 진정성

은 재판부에 잘 전해지게 되었고 그의 사정을 참작하여 첫 공판에서 바로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

벌금 납부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B씨는 지금껏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은 없었다면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준 법률홍닥터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2. 8.부터 법정 최고 금리는 두법 모두 24%로 조정되었다. 이 날짜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연장되는 금전 거래에서는 최대 연간 24%의 이자만 약정할 수 있고 이보다 높은 이자를 받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것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기사는 법무부 발간 '2017 법률홍닥터 우수사례 집'에 실린 실제 사례입니다.